

이 넉넉함, 이 평온함...그리웠다! 내 고향 들녘



노랗게 물든 남도의 가을 들녘은 결실의 풍요로움과 넉넉한 여유를 느끼게 한다. 추수를 앞둔 화순 이양면 들판.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도의 가을은 들녘으로부터 온다. 들판은 마을과 산과 강을 잇는다. 산하의 어느 곳이나 들어서 있는 들판은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다. 논베미들이 이웃해 만들어낸 풍경은 소소하지만 단정하다. 과일에 단맛이 들고 찬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을의 전조일 뿐이다. 들녘의 곡식이 황금빛으로 빛날 때, 비로소 가을이 물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을은 오는 것이 아니라 물드는 것이다.

이곳은 화순 이양(梨陽), 장흥과 보성 그리고 광주로 가는 길목이다. 화순에서는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이웃한 지석전과 금릉리 주변에는 비옥한 농토가 펼쳐져 있다. 이양(梨陽)이라는 지명에 깃든 '별 양'(陽)자는 햇빛이 들어지는 생명의 땅임을 말해준다. 아담

하고 반듯한 논베미는 선이 고운 새색시의 저고리를 닮았다. 다함없이 이어진 수수한 이 풍경은 논과 밭이, 아니 들판과 산하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가을 들녘에 서면 햇살도 베풀기처럼 영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지막 햇살이 알곡에 들쭉 스며들기"를 기원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노래가 가을의 애송시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가을별은 풍요롭고 참진데, 햇살이 키워낸 만석(萬石)의 꿈은 더러는 아득하고 부질없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나락 값 폭락 소식에 농심은 멍이 든다. 풍년이 들수록 빈한해지는 삶은 무참하고 쓸쓸하여, 어느 해인가 농부들은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고 울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의 풍요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의 은전이 있었음을,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말이다.

어디선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온다. 하늘을 울려다보니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도열하듯 서있다. 반듯하고 정연한 나무는 언제나 현재의 풍모가 감돈다. 새들의 무리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앉아 가을의 한때를 노래한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더숲)에 나오는 말이다. 시인은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라며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고 속삭인다. 어쩌면 우리는 무거운 돌을 매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른다. 지난한 과거와 상처에 얽매어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이다. 새들의 무리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염대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들녘은 긴 휴식에 들어갈 것이다. 약동의 세상을 열기까지 모든 생명들 또한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 동면에 들어가리라. 적외와 고요 속에서, 비로소 생명은 움튼다. 저 노란 들판은 '숨' 같은 '침'을 쉬라고 나지막이 속삭인다.

당신의 추석도 평안하고 넉넉하기를 기원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 한마당...투호놀이로 태국 코코넛 달리기

한가위 문화 마실 가볼까

그 어느 때보다 긴 추석연휴를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디자인비엔날레는 연휴 기간 동안 쉬는 날 없이 문을 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다양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0월 3일부터 8일까지 '2017 아시아 한가위 한마당-보름달 아시아(Full Moon Asia)'를 어린이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전통놀이를 체험 프로그램은 중국-면제기, 태국-코코넛 신고 달리기, 일본-다부마오토시한국-웃놀이, 제기차기, 투호, 딱지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아시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가 추석특집으로 진행되며 아시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발된 창·제작 공연 '드라마멘트 인 아시아'가 열린다. 그밖에 '시네마천국', '사운드 오브뮤직' 가족제작영화를 상영하는 'Cinema for Kids'와 어린이극장이 아름다운 음악홀로 변신하는 'Classic for Kids'도 진행된다.

ACC 예술극장에서는 콘서트와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0월 4일에는 수궁가의 '난감하네'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을 차지한 '에스닉 팝그룹 락 (프로젝트 RAAK)'의 퓨전국악 콘서트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7시부터는 빅도어시네마-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 상영된다. 이밖에도 토마스 사르세노의 국내 최초 개인전시

문화전당 가족제작영화·어린이 클래식 공연·퓨전국악 콘서트·낭만투어

비엔날레 전시관서 광주팝스오케스트라... 전통 의상 체험·민속놀이 등 다채

인 '행성 그 사이의 우리'(ACC 문화창조원 복합1관) 등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또 전당을 둘러보는 'ACC낭만투어'도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 일과 토요일 진행된다.

10월 9일을 비롯해 추석 연휴 전 기간 동안을 정상 운영(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요일만 오후 7시까지)하며 10월 2일과 10일만 휴관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FUTURES'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둘러봐도 좋다.

인트로 격인 '본전시 1-오래된 미래'를 비롯해 '미래를 디자인 하자', '미래를 장엄하자', '아시아 더 퓨처' 등 4개의 본전시와 '4차 미디어아트-포스터 휴먼' 등 3개의 특별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34개국 850여 작가와 기업 등이 출품한 1300점을 만날 수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 의상 체험, 민속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3~5일 '전통 생활한복을 비롯해 임금, 대감의상, 선비 의상 등을 입어보는 전통의상 전시 체험장도 운영하며 전통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50% 할인 해준다.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열리는 웃놀이, 투호, 제기

차기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지며 10월 6~7일 오후 4시전시관 야외무대에서는 광주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도 마련된다.

전시관의 체험코너도 풍성하다. 1전시관의 에코라이트, 2전시관의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모빌리티 비전 컨셉 전시관과 1인승 모빌리티 시승, 플레이하우스, 체험워크숍 등이 인기다. 특히 '택시운전자'에 출연한 '브리사 택시'는 '인증샷' 관람객들이 몰리는 인기 코너다. 그밖에 3D 프린터로 출력한 재료를 이용해 플레이하우스 캐릭터 피규어를 만들어보는 체험 등도 마련했다.

◇박물관 민속행사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민속놀이체험과 차례상차리기 체험 등 다채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받고랑기어가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4일과 5일에는 전통한복입기 체험, 사물놀이·민요·사자춤 등 민속공연(오후 3시~4시30분)이 마련돼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정선회 작 '머무는 풍경'

'2017 한가위우리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래놀이 경연을 통해 우승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5일에는 유진박랜드의 추석 특별공연과 팀클라운의 버블쇼&마술공연, 어린이 국악단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추석당일 4일 휴관. 국립나주박물관도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쌍륙 및 고누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와 상모돌리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연휴기간 내내 추석당일 4일 휴관.

◇전시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전시관에 들른다면 이웃한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화산 출신 서예가 근원 구절우 선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매향-근원 구절우

전'이 진행중이다. 또 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4차 미디어 아트-포스트 휴먼' 전도 눈길을 끈다. 백남준, 이이남 등 대표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인 열리는 1층 전시실은 쉬는 날 없이 운영하며 나머지 전시관은 10월 1일과 추석 당일만 휴관한다.

롯데백화점 9층에 자리한 롯데갤러리는 추석 특집전 '달하 노피곰'전을 열고 있다. 우리 일상 안에서 상서로운 존재인 달을 소재로 한 전시로 노신환, 박일구, 박정용, 신호윤, 이종구, 임남진, 임현채, 장용림, 정선휘, 조정태 등 10명의 작가가 서양화, 한국화, 사진, 미디어, 도자,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10월 3일과 4일만 휴관한다.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